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 실증 착수

전북자치도·군산시, 현대차 등과 협약 체결... 청정수소 기술 국산화·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수소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 행보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7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방재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Falko Berg 현대차 상무, 박훈모 현대로템 상무, 김성운 방재시험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전북자치도와 현대차가 체결한 수소산업 총괄 협력 협약의 세부 과제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성박 대체연료 실증센터 부지에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을 받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실증부지 제공 및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 운영, 현대차는 암모니아 크래커 설계 및 실증 운영, 현대로템은 설비 제작·설치 및 시운전, 방재시험연구원은 안전수칙 마련을 각각 담당한다.



7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열린 가운데,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Falko Berg 현대차 상무 등이 체결을 마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암모니아(NH₃)는 -33.4℃에서 쉽게 액화되고,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효율이 높아 차세대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온(700-900℃)에서 열분해를 통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 수소 생산 기술의 혁신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암모니아 분해를 통한 모빌리티용 수소 생산 프로젝트로, 청정수소 기술의 국

산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 기술의 실증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항만, 수소 선박, 수소충전소 등과의 연계 활용도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공급 기술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도 "군산시는 기존 산업과 수소 기술을 융합해 청정 에너지 기반의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소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도내 온열질환 첫 사망자 발생... 전북자치도 보건당국 "건강 수칙 실천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진안 구봉산 등산 도중 50대 남성(경기 용인시 거주)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폭염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북지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으며, 주요 질환은 열탈진(25명), 열경련(16명), 열사병(11명), 열실신(9명)으로 나타났다.

수분 섭취·시원한 환경 유지·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6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56명(90.3%)으로 여성보다 많아 실외 작업 및 고온 노출 환경에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논밭(17.7%), 실외 작업장(19.4%) 등 주로 외부 활동 중 발생하고 있으며,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

련, 피로,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들이 실천해야 할 건강수칙도 함께 강조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환경 유지 △오후 12시~5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 등을 권장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는 동반자와 함께 활동하거나 활동 자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열음·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하며, 호전이 없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5월 15일부터 도내 응급실이 운영되는 20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공개 중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전통시장 9곳, 축제로 '활기'

무주 반딧불시장 시작으로 12월까지 테마형축제

전북도 차원서 직접 기획·통합 지원 체계적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일 무주 반딧불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테마형 축제를 연이어 열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통시장 축제 시즌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시장별 고유 특성과 지역 문화를 반영한 테마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기획·통합 지원하며 체계적 운영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주요 축제로는 전주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이 하나 되는 '활기 넘치는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회 중심의 자생적 운영 기반을 강화해 전통시장이 자립형 경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지방도시 연대 통한 하계올림픽 유치해야”

전북자치도, 국가균형성장특위 간담회 참석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등 5대 전략

피지컬 Si 기반 혁신 생태계 등 10대 과제 제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17개 시도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전북, 제주, 강원을 시작으로 이들 간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의 소통 창구로 마련되었으며, 17개 광역시도가 이들 간 권역별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제주·강원도와 함께 첫 번째 세선에 참석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속의 국가,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등 5건과 '지역공공 혁신과제'로는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피지컬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융합기술 안티드론 K-방산 육성 기지 △첨단재생의료 특화 전북 바이오

허브 조성 등 10건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과 지역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거점으로 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재생에너지, 지방거점 도시와의 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 금융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전북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전략이 곧 국가전략임을 강조하며,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간담회에서 제안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삶의 휴식공간

유희시설의 변화와 지역사회 활성화

함께가는 액션그룹[천마양갱, 티라미수]
무주군의 산림자원을 형상화한 실내 인테리어
무주 명소로 거듭나는 무심원

MUSIMONE (사)무주군산협력플러스사업단
063-322-0998



MUSIMONE.OFFICIAL